

세 권의 책을 읽고, 처음으로 되돌아가다

— 나의 문학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곁하여

루신화(盧新華) 저*, 문희정 역**

‘책 세 권’ 읽기에 관해 몇 해 전 『인민일보(人民日報)』에 ‘삼서주의를 논하다(論三本書主義)’라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어째서 그런 글을 쓸 마음을 먹었을까? 따져 보면 문화대혁명 시기 널리 비판을 받은 ‘일서주의(一本書主義)’라는 구호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일부 작가들이 책 한 권으로 이름을 알린 뒤 더는 글을 쓰지 않고 그 덕을 보며 평생 먹고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다보니 내가 1978년 8월 11일 상하이(上海) 『문희보(文匯報)』를 통해 단편소설 「상흔(傷痕)」을 발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자 사석에서 내게 이런 말을 하는 이도 있었다. “자네는 아예 ‘단편소설 일편주의’로군. 「상흔」 한 편으로 ‘상흔문학’ 유파를 창시하고 그길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으니 말이야.”

「상흔」은 분명 내게 커다란 영예와 후광을 가져다주었다. 대학 신입생에 불과하던 나는 「상흔」을 쓴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중국 작가 협회에 가입했고, 제4차 문학 예술가 대표 회의의 최연소 대표가 되었으

* 루신화(1954~), 푸단대학 중문과를 졸업하고 UCLA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문화대혁명 이후 대학 1학년 재학 중에 「상흔」을 발표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에서의 보장된 삶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뒤 삼륜차 기사, 출판사 직원, 카지노 딜러 등의 직업을 두루 경험했으며, 이후 창작에 이를 풍부하게 반영했다. 주요 작품으로 『세절(細節)』, 『자금녀(紫禁女)』, 『부는 물과 같다(財富如水)』 등이 있다.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 수료, 현대중국문화연구실 연구원, missmoon@empas.com

며, 당과 국가 최고 지도자의 접견을 받고, 다과회에서 후야오방(胡耀邦) 선생과 한자리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 후로도 상하이시 청년 연합 회의의 상무위원으로 추대되고……

하지만 내 문학 여정과 인생이 그때부터 「상흔」과 운명을 같이하며, 또 다른 버전의 ‘일서주의’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여러 측면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했다. 그리고 끝내 나는 자신의 인생 여정이나 창작의 이행에 있어 남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고, 점차 ‘삼서주의’라는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종종 이를 ‘세 권의 책을 읽고 처음으로 되돌아가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글을 쓰는 사람은 우선 책을 읽어야 한다. 나쁜 책을 읽으면 나쁜 글을 쓰게 된다. 그래서 이 제목을 처음 들은 사람들 중에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묻는 이도 많았다. “그 세 권이 어떤 책입니까? 목록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나는 그저 고개를 내저으며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드릴 따름이었다. “일반적인 의미의 책이 아니라 아주 커다란 책 세 권입니다. 한 권은 글자가 있는 책, 한 권은 글자가 없는 책, 한 권은 마음이라고 불리는 책이지요. 다른 말로 한 권은 ‘책 속 지식’, 한 권은 ‘자연과 사회’, 한 권은 ‘자신의 마음’이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불교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한 권은 ‘문자반야’, 한 권은 ‘실상반야’, 한 권은 ‘마음반야’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차례를 지켜 읽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내가 ‘책 속 지식’, 즉 글자가 있는 책을 읽고 깨달은 바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사람은 평생 방대한 양의 다양한 책을 접하게 된다. 그 중에는 당신을 매료시키고 당신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책도 있고, 천신만고 끝에 당신의 손에 들어오는 책도 있으며, 또 당신과 안타깝게 어긋나거나 눈앞에서 놓치고 마는 책도 있으니, 혹시 이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이미 정해 놓은 뜻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는데, 것처럼 무한히 많은 총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책과 잡지, 너무

많아 눈이 어지러운 인터넷 작품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관적이고 선택적인 독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겪고 느낀 바는 역시 이미 수세기 동안 검증받은 고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나의 「상흔」 창작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작품의 참신하고 꾸밈 없는 문체와 진지하고 강렬한 감정, 핵심을 찌르는 내재적인 사상의 힘이였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이런 작품을 많이 접해 보아서 별로 새롭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의 인민들이 매일같이 8대 모범극밖에 볼 수 없던 시절, ‘삼돌출’의 창작 원칙(모든 인물 중에서 긍정적 인물이 돌출되어야 하고, 긍정적인 인물 중에서 영웅적 인물이 돌출되어야 하며, 영웅적 인물 중에서 주요한 영웅적 인물이 돌출되어야 한다)을 받드는 것이 금과 옥조이던 시절, 중간인물, 사랑, 사회주의의 어두운 면을 쓰는 것을 대역무도로 취급하던 시절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처럼 사상적으로 속박되었던 시대에 불온서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국내외의 명저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하늘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중학교 졸업 전까지 내 독서는 아주 제한적이었다. 부친은 당시 산둥성 내이창산(內長山) 요새 구역 수도(守島) 부대의 장교였고, 당시 우리 가족은 모두 군대와 함께 움직였다. 나는 다섯 살에 학교에 입학했고, 열한 살에 산둥 창다오(長島) 중고등학교의 중학교 과정에 진학하여 1968년에 졸업했다. 입학 신체검사 당시 내 신장과 체중은 고작 1미터 31에 25킬로그램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966년 여름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담임 선생님이셨던 쩌우밍차이(鄒明才) 선생님께서 나를 불러 말씀하셨다. “학교에서 논의한 결과 너를 월반시키기로 결정했어. 여름 방학 끝나고 돌아오면 3학년 수업을 듣는 거다. 2학년은 건너뛰고 말이야. 이걸 너를 위해 준비한 2학년 교과서야. 방학 동안 열심히 읽어 봐.”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다. “교장 선생님께서 너를 유심히 보고 계셔. 방학 동안 노는 데 정신을 팔거나 자만해선 안 돼. 학교에서는 네가 고등학생이 되면 한 번 더 월반을 시켜서 열다섯 살에 대학에 추천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어린 시절 나는 비교적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고, 공부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중학교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당시 읽은 책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어우양하이(歐陽海之歌)』 정도가 유일하다. 당시 내게 가장 흥미로운 일은 산에 올라가 새를 잡고 바다에 나가 수영을 하는 것이었으며, 가장 큰 꿈은 레이펑(雷鋒)처럼 운전병이 되어 해방포 트럭을 몰고 세상을 누비는 것이었다. 그렇다보니 열다섯 살에 대학에 추천 입학하는 일 따위는 마음에 담아 두지도 않았고,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 접어들어 정치와 거리를 두고 학문에만 정진하는 노선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그 일은 더욱 내 관심에서 멀어졌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한 시기는 내가 농촌 생산대에 배치된 이후로 볼 수 있다. 집을 떠나 부모의 비호에서 벗어난 뒤 매일같이 하늘을 등지고 땅을 쳐다보며 팽이와 삼을 벗삼아 땀을 비 오듯 쏟으며 ‘지구를 수리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바라는 것이라고는 그저 태양이 조금 늦게 뜨거나 날이 조금 일찍 저무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일하며 1년을 보낸 후에야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러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했고 스스로 운명을 바꿀 길을 찾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마침 당시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청춘의 노래(青春之歌)』와 『삼가항(三家巷)』을 돌려 읽고 있었기에 나도 이를 구해서 읽어 보았다. 린다오징(林道靜)이 루자촨(盧嘉川)에게 쓴 뜨겁고 절절한 시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후 우연히 생산대가 주문한 『신화일보(新華日報)』에서 전면을 채운 시와 산문을 보게 되었다. 대부분 추수와 가을 과종 기간에 ‘새 시대를 열자’는 식의 투쟁 의지로 가득한 글이었다. 나는 절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선생님은 늘 내 작문 실력을 칭찬하셨는데, 시를 쓰는 것도 썩 어려운 일은 아니겠는데? 못 쓸 것도 없지 않나?

그래서 그때 무슨 시를 썼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주로 노동을 통해 느낀 바를 썼으며 그 중에는 ‘대자연과 투쟁하자’는 기백과 ‘중국과 세계를 변화시키자’는 용지가 넘치고 문체 또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공격

적인 어조였다는 기억이 있을 뿐이다. 1972년 연말 군에 입대한 뒤, 나는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도박을 하거나 시내 구경을 나가거나 친구 집에 놀러가는 대신 조용한 곳을 찾아 책을 읽었다. 지도자의 저작은 물론이고 혁슬리의 『진화론(天演論)』과 『형식논리(形式邏輯)』 등도 읽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더 사로잡은 것은 역시 루쉰의 소설이었다. 「외침(吶喊)」과 「방황(彷徨)」을 나는 읽고 또 읽었다. 우리 부대의 주둔지는 산동의 취푸(曲阜)였다. 그곳은 1975년 비림비공 시기 일약 유명 지역이 되었고, 인민일보와 해방군화보, 중앙신문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소 등의 언론사에서 끊임없이 기사를 보내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어 갔다. 항공 촬영용 헬리콥터도 자주 우리 포격 훈련장을 오르내렸다. 나중에는 평범반유를 위해 부대에서 적지 않은 간부와 군인들이 축출되어 근처 산둥 취푸사범학교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교사와 학생, 노동자와 농민과 함께 정치 선전 자료를 편역했다. 그 중 우리 부대 부중대장 하나가 업무차 취푸사범학교에 가는 김에 도서관에 들러 나로서는 금시초문이었던 ‘금서’와 ‘불온서적’을 계속해서 빌려 왔다. 참고와 비판을 위해 제공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는 내가 책 읽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자주 내게도 그 책들을 보여 주었다. 내가 중국문학사와 세계문학사에 등장하는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그 중에는 바金的 『집(家)』, 『봄(春)』, 『가을(秋)』, 마오둔의 『한밤중(子夜)』부터 모파상, 체호프, 위고, 도데, 톨스토이 등의 저작이 포함되었다. 이 작품들은 내 머리 꼭지에 커다란 지붕창을 내어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처음으로 예술이라는 드넓은 하늘을 느끼게 해 준 것이다. 예전에 『인민화보』나 『해방군화보』를 보았을 때는 늘 사진 속 사건과 인물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이제야 모든 것이 연출된 것에 불과하며, 부대에서 병사를 선발할 때도 시커멓게 그을리고 체격이 건장한 전형적인 공농병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람을 고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쿵라오얼을 타도하자(打倒孔老二)’는 구호를 외칠 때는 반드시 분노에 가득 찬 얼굴에 경멸과 증오를 담아야만 했다. 나는 그 무렵에야 뉴스도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였다. 『어우양

하이의 노래』를 읽고, 『화창한 봄날(艷陽天)』과 『금광대도(金光大道)』 등의 문화대혁명 시기 일세를 풍미했던 작품을 읽으며 소설 속에 묘사된 인물의 사유방식을 학습하고 응용하여 이를 인간관계에 적용시켜 보려 했지만 끝내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하지만 비교할 대상이 있었기에 보는 눈도 생겼다. 나는 국내외 문학사의 주요 작품들을 읽은 뒤에야 무엇이 진실한 감정이고, 무엇이 진실한 삶이며, 무엇이 빛나는 사상이고, 무엇이 고전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속으로 남몰래 결심했다. 만약 언젠가 내가 소설을 쓰게 된다면 이 외국의 명작이나 루쉰 선생의 작품을 배워야 할 본보기이자 계승해야 할 모범으로 삼겠다고. 또한 책을 읽을 때는 선택적인 독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어떤 책을 읽는지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결정된다. 만약 우리가 역사의 반복적인 검증을 거쳐 고전이라고 확인 된 양서들을 읽지 않는다면, 독서는 생명을 낭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교도할 수도 있다.

훗날 ‘사인방’ 타도와 개혁개방을 거쳐 시대가 급변하면서 내 안에 있던 글쓰기에 대한 욕망도 조금씩 되살아났다. 내가 막 제대하고 장수 난통(南通)의 어느 디젤 기관 공장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나는 이미 『반뒤링론』의 틀을 본뜬 『사인방 비판(四人幫批判)』이라는 책을 써서 사상 노선의 측면에서 당시의 극좌 사조를 비판하고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관련 기록이나 자료를 열람할 길이 없어 단념해야 했다. 결국 나중에 푸단(復旦)대학 중문과의 문학비평 전공에 입학한 뒤에야 비로소 소설이라는 문학 형식을 통해 그 시대에 대한 나의 사색과 비판을 반영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오전 작품 분석 시간이었다. 교수님께서 쉬서우상(許壽裳) 선생이 루쉰의 「축복(祝福)」을 평론할 때 쓴 구절을 언급하셨다. “인간사의 비극은 늑대가 아마오(阿毛)를 먹은 것이 아닌 봉건예교가 상린(祥林) 아주머니를 먹은 것에 있다.” 당시 이 말은 마치 번개처럼 내 몸과 마음을 관통했다. 머릿속에는 곧바로 이와 몹시 유사한 명제가 떠올랐다. ‘문화대혁명이 중국인과 중국 사회에 끼친 엄

청난 피해는 결코 국민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심신에 유입될 수 없는 상흔을 남긴 것이다.'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아무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교정 입구에 펼쳐진 풀밭을 지나 가다가 문득 눈을 들어 마오 주석의 조각상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비극적인 초안이 내 뇌리를 파고들었다. 문화대혁명 시절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던 어느 여성 청년은 역적으로 몰린 모친과 선을 구기로 작정하고 집을 떠난다. 그렇게 헤어진 세월이 8년이 흘러 모친의 누명이 벗겨진 후에야 청년은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녀가 병원에 도착하여 마지막으로 모친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미 모친이 세상을 떠난 뒤였다……

「상흔」이 발표되면서 사회적으로 거대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상흔」을 읽은 이들의 눈물이 강을 이룰 정도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문예계의 대가 중에 애정의 금계, 중간인물의 금계, 인성론의 금계, 사회주의 시대 비극의 금계 등등 「상흔」에서 돌파한 한계가 무엇인지 일일이 들어 평론을 쓴 이도 있었다. 하지만 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자면, 나는 사실 아무것도 돌파하지 못했다. 나는 내 모든 것이 그저 계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계승한 것은 1930년대의 루쉰 선생과 서양의 비판적 리얼리즘 풍조였다. 이것이 극좌사조의 장기적인 침해로 점차 사람들의 시야에서 멀어지는 바람에 얼핏 새로운 돌파처럼 보였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문화대혁명을 겪을 당시 아직 어렸던 관계로 '삼돌출'의 창작 원칙의 나쁜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다. 더 다행한 것은 시운을 잘 탄 덕에 모든 문화가 박해를 받았던 시대에도 소위 고전이라고 불리는 중국문학과 세계문학의 명저들을 읽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내가 대학교 2학년이던 해였다. 강의실에서 『중국당대문학사』에 실린 나와 관련한 글을 읽다가 문득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사색이 시작되었다. 「상흔」 및 이로 인해 촉발된 '상흔문학' 운동의 사회적 의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흔」이 내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늘은 왜 굳이 나에게 이와 같은 집필자의 역할을 감당

케 하셨을까? 스스로를 향한 이 질문들은 계속해서 나를 옥아팠고, 이는 내 학창시절 전체를 관통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학과에서 배치를 담당하셨던 장(張) 선생님께서 나와 세 차례 대면을 거친 후 『인민일보』에서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위원회의 서기 자리에 내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을 때, 나는 내가 인생의 갈림길에 놓였음을 깨달았다. 만약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간다면 내게 있어 「상흔」의 의미는 정말로 하나의 출세의 수단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마지않는 벼슬길의 문을 열어 주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한편으로는 어림פות이 느끼고 있었다. 하늘이 내가 스물넷의 나이에 처음 쓴 소설 한 편으로 대대적인 ‘상흔문학’ 운동이 일어나게 했을 때, 그 목적과 의도는 공화국의 관료 사회에 영원히 ‘뱃속에 불평이나 가득한’ 별 불 일없는 관료 하나를 더 늘리는 데 있지 않았을 것임을. 오히려 내가 독립적인 인격과 자유사상의 노선을 따라가며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운명을 같이 하면서 더 좋은 문학 작품들을 더 많이 쓰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 더 나아가 내 생명은 모두 문학의 일부다.

기왕에 자신을 문학의 일부로 받아들였으니 문학적 측면에서 인생의 총체적인 플랜을 세워야 옳았다. 그때 이후로 나는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가라’는 지식인에 관한 선인들의 가르침과 엄우(嚴羽)가 『창랑시화(滄浪詩話)』에서 논한 문학의 최고 경지는 ‘자연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만 권의 책을 읽는’ 것은 대학에 진학한 뒤 곧장 몸소 실천에 옮겼다.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10년을 그냥 흘러보냈으니 독서량 또한 한참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당시 학업을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부지런히 창작에 임했다.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면 동서고금의 고전 문학을 ‘부지런히 보충’해 읽으며 도스토옙스키, 셰익스피어, 디킨스, 까뮈, 카프카, 헤밍웨이 등의 작품에 조금씩 다가갔다. 고문전적의 체계적인 독서를 위해 교수님께 『좌전(左傳)』, 『사기(史記)』, 『소명문선(昭明文選)』 등이 포함된 기나긴 도서 목록을 추천 받기도 했다. 한참 『소명문선』에 실린 한부(漢賦) 읽기에 매진하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기억도 있다. 그와 동시에 공강이나 점심 식사 후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당시삼백수(唐詩三百首)』, 『송사삼백수(宋詞三百首)』, 『원곡삼백수(元曲三百首)』 등을 암송해 나갔다. 독서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만리를 가고’ ‘자연을 따르는’ 길이 결국은 독서에 있으며, 방식만 다를 뿐임을 조금씩 깨우치게 되었다. 눈과 발과 마음으로 ‘자연과 사회’라는 글씨 없는 거대한 책을 읽는 것이다. 이 역시 ‘실상의 책’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앞서 말한 책보다도 우리 삶에 훨씬 중요하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책 속 지식’이란 선인이나 타인이 자신들이 속했던 시대와 사회, 자연 속에서 바라본 삶의 체험이자 사고의 결정체다. 이것은 우리 삶을 인도하는 본보기는 될 수 있겠으나 결코 우리 삶 자체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인류의 사고는 더욱 깊어지고 섬세해지고 치밀해지며, 인류의 서적 또한 산처럼 쌓여 간다. 하지만 ‘자연과 사회’라는 인류의 사고의 대상이 사라지면 인류의 모든 서적은 근원이 없는 물이자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책이고, 모든 ‘책 속 지식’은 그저 그것의 모사본이나 복사본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이 생긴 뒤 나는 의식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읽는데 더욱 힘을 쏟았다.

나는 ‘공농병학’을 두루 경험했으나 유독 상업적 경험이 부족했다. 이를 깨달은 뒤 문화보에 배치된 지 2년여가 지난 어느 날 결연히 공직에서 물러나 장사에 뛰어들었고, 후에 어느 매체에 의해 ‘사업에 투신한 제1호 문인’이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다. 그러다 멀리 바다를 건너 미국 유학길에 오른 뒤에는 삼문차 끌기부터 폐케이ابل 판매, 출판사의 영문부 책임자, 카지노 딜러로도 일했다.

1998년 출국 후 쓴 첫 장편소설 『세절(細節)』이 중국에서 발표된 후 『종산(鐘山)』이라는 잡지사가 푸단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제법 많은 매체가 찾아왔다. 그 중 상하이(上海) 『청년보(青年報)』의 기자가 돌아가서 쓴 기사의 제목은 이러했다. 「한때 이름을 떨쳤으나, 이제는 카지노의 딜러가 되다」 몇몇 대학 은사님과 동기들이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와 내 대신 울분을 터뜨렸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 나는 오

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그렇게 못 쓸 게 뭐 있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한때 이름을 날린 것이나, 이제 카지노의 딜러가 된 것이나, 다 사실이잖아.” 하지만 나는 작가와 카지노의 딜러를 같은 선상에 놓기 어려워하는 국내 정서를 내심 알고 있었다. 다들 내가 미국에서 살기가 막막해지자 어쩔 수 없이 카지노에서 딜러를 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내가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카지노 딜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매일같이 카지노에서 딜링을 하는 중에도 역시 독서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리가 없다. 딜러에게는 매일 서너 시간 가량의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그래서 나는 출근할 때마다 책을 한 권씩 챙겼다. 영문 소설도 좋고, 철학 서적도 좋고, 종교 경전도 좋았다. 그리고 내 휴식 시간이 돌아오면 적당한 장소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은 뒤 독서에 집중했다. 친구 중에 작가 권칭(峻靑)의 아들이 있는데, 한번은 그가 사람들과 함께 카지노에 놀러왔다가 내가 그곳에 앉아 잔뜩 집중해서 『금강바라밀다경』을 읽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와, 저기 좀 봐, 좀 보라고. 신기하지 않아? 누가 이 정신없는 카지노에 앉아서 불경을 읽고 있어!”

하지만 그 친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 카지노에서 일하던 시절 내 가장 주요한 독서는 사실 카지노 테이블에서 패를 돌릴 때 이뤄졌다. 카지노 테이블 하나하나가 인생의 현묘한 이치로 가득한 글자 없는 책이었다. 중국에는 ‘도박판에서 사윗감을 구하라’는 옛말이 있다. 나는 매일같이 패를 읽고, 칩을 읽고, 사람을 읽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고 부가 가진 ‘물과 같은 성질’에 대해서도 다소 이해하고 체득하게 되었다. 칩 한 개는 물 한 방울과 같고, 무더기로 쌓인 칩은 넘쳐흐르는 물과 같다. 푸른색 벨벳이 덮인 테이블은 각각의 연못이고, 카지노 전체로 시야를 넓히면 부의 호수가 된다. 나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장씨 앞에 가득하던 칩이 어느새 모두 이씨 앞으로 옮겨갔다가, 이씨가 적당한 타이밍에 발을 빼지 못하면 것처럼 높이 쌓여 있던 칩들이 순식간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여기서 나는 부라는 물이 가진 움직임이고, 증발하고, 얼어붙는

‘눈덩이 효과’와 더불어 부드러운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고, 악인과 악행을 감쌌다가도, 결국에는 아래로 흘러가 버리는 성질을 깨달았다. 결국 나는 카지노 테이블이라는 글자 없는 책 덕에 『자금녀(紫禁女)』와 『부는 물과 같다(財富如水)』라는 두 권의 글자 책을 써 낼 수 있었다.

물론 ‘자연과 사회’와 같은 ‘글자 없는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가치 있는 ‘글자 책’을 쓰는 데에 있지는 않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도움을 준다. 노자는 『도덕경(道德經)』에서 이렇게 말했다. “학문을 닦는 것은 날로 더하는 것이오(爲學日漸의 ‘漸’이 ‘益’인 판본도 있다), 도를 닦는 것은 날로 비우는 것이다. 비우고 또 비움으로써 무위에 이른다.” 그 말인즉 학문을 위해서는 다다익선이 옳으나 깨달음을 위해서는 옹당 그와 정반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려놓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며, 버리고, 버리고, 또 버려야 하는 것이다.

나는 UCLA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학생으로 첫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 1학년 때는 학비만 감면이라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다. 당시 자비 유학생들에게는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가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교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텔의 야간 매니저로 근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학교 구인광고 게시판에서 ‘pedicab’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사전을 뒤져 보니 ‘삼륜차’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나는 의아했다. 미국처럼 교통이 발달한 나라에, 차가 없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무슨 삼륜차? 하지만 저녁이나 주말에만 하는 일이라 학업에도 영향이 없을 것 같아 구경이나 가 보자는 마음으로 찾아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회사는 독일계 유대인 부부가 시작한 것으로, 학교 부근의 웨스트우드 빌리지(일명 리틀 파리는 열 곳이 넘는 극장과 수십 곳에 달하는 레스토랑, 수없이 많은 쇼펍센터가 몰려 있어 주말이면 관광객으로 가득하지만, 지역이 넓은 편이라 관광객들이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불편함이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삼륜차 회사를 차려 관광객들에게 이동과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 것이었다. 부부가 고용한 직원은 하나같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었다. 다만 백인이 대부분이었고 나는 유일한 아시아계였다. 첫 출근 날로 기억한다. 저녁 6시 30분부터

대기를 시작했지만 10시가 다 되도록 삼륜차를 타려는 손님을 만나지 못했다. 후회와 고민으로 괴로워하던 찰나 문득 누군가 큰 소리로 “TAXI!” 하고 외치는 것이 들렸다.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주변에 택시는 보이지 않았다. 다시 시선을 돌리는데 그 사람이 맞은편 골목 어귀에서 나를 향해 큰 소리로 “TAXI!” 하고 외치는 것이 보였다. 나는 내 이마를 가리키며 물었다. “ME?” “YES, YES, YES!” 그는 세 차례나 연달아 대답했다. 나는 그제야 삼륜차가 택시로도 쓰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서둘러 차를 몰고 갔다. 그들은 거구의 부부였는데, 결혼 10주년을 맞아 모교의 교정을 거닐며 추억을 더듬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는 내게 기쁨과 근심을 함께 안겨 주었다. 드디어 마수걸이를 해서 10달러쯤 벌 수 있겠다는 기쁨과 이 두 거구의 무게를 합하면 내 네 배쯤 되겠다는 근심이었다. 게다가 학교로 가는 길은 온통 오르막이었다. 그것은 정말이지 길고도 먼 길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젖 먹던 힘까지 짜내야 했고, 그들이 지시한 교내의 어느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어디 하나 마른 곳이 없을 정도였다. 차에서 내린 뒤 여자가 먼저 물었다. “HOW MUCH?(얼마죠?)” 나는 모진 마음을 먹고 말했다. “25달러요.” 여자는 두 말도 않고 돈을 꺼냈고, 그것을 지켜보던 남자도 같이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여자가 내게 25달러를 건네고 있는데 남자도 2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내 손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그저 남자가 쩌쩌하게 20달러만 주려는 것으로 오해하고는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NO, TWENTI-FIVE!(안됩니다, 25달러예요.)” 남자는 순간 멈칫하더니 곧 웃음을 터트리며 말했다. “NO, THIS IS YOUR TIP.(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 팁이에요.)” 가벼운 목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마치 우렛소리처럼 느껴졌다.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내가 그간의 교육을 통해 쌓은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도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순간 마오쩌둥이 『안녕히, 스튜어트』에서 한 말이 떠올랐다. “우리는 미국 정부와 미국의 인민을 분리해야 한다. 미국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그 아래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

동자들을 구분해야 한다.” 그때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었다. “미국의 인민도 위대한 인민이구나!”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면 두고두고 감사해야 할 사람과 사건, 사물들이 수없이 많았다. 삼륜차는 그 중 하나다. 삼륜차를 몰게 된 후 스스로를 먹여 살릴 길을 찾았고, 삼륜차 자체가 내게 ‘이동 책방’이 되어 주기도 했다. 나는 삼륜차를 통해 빠르게 미국 사회에 스며들었다. 이 과정에서 내 영어 회화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매일 꾸준히 단련하다 보니 체격도 날이 갈수록 건장해졌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삼륜차를 모는 일이 내가 진정한 ‘내려놓기’를 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상흔」을 쓴 이후 너무도 많은 영예와 후광이 내게 집중되었고, 그것들은 나로 하여금 온갖 ‘교만’의 기운을 뿜어내게 만들었다. 나는 이미 불경을 통해 ‘만물이 인연에서 생겨나고, 또한 인연으로 스러진다’는 이치를 깨우치고, 「상흔」이 사실은 여러 인연이 이뤄낸 성취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문화대혁명이 없었다면, 개혁개방이 아니었다면, 것처럼 거대한 시대적 배경이 없었다면, 나는 「상흔」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학급에 게시판이 없었다면, 게시판의 편집장이 그것을 첫머리에 놓지 않았다면, 기숙사 위층에 살던 여학생들이 흘린 눈물이 없었다면, 문화보의 편집진에게 해안이 없었다면, 발표 전에 교육계와 문화계, 언론계의 비교적 일관된 긍정과 지지의 의견이 없었다면, 「상흔」은 뜻대로 발표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내 책상 서랍 속에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그 위에 내 이름이 쓰여 있긴 하지만 그것은 수없이 많은 인연들의 이합집산의 관계를 반영하는 하나의 부호에 불과하다. 나는 내가 아니고, 나라는 이름일 뿐이다. 나는 스스로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나는 군 시절 무장한 채 강을 헤엄쳐 건너던 광경을 떠올렸다. 시험해 본 바에 따르면 소충 한 자루를 등에 메고는 1,000미터를 헤엄칠 수 있다. 두 자루가 되면 300미터 쯤 갈 수 있다. 하지만 세 자루부터는 아예 물 위에 뜰 수조차 없다. 이는 내게 깨달음을 주었다. 인생은 수영이나 등산과 같아서, 때로는 몸에 짊어진 무게가 그 사람이 얼마나 멀리 헤엄쳐

갈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높이 오를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영광스러운 후광은 사람을 취하게 하지만 부담스러운 인생의 짐이기도 하다. 그것을 등에 지고는 결코 멀리 헤엄쳐 갈 수도, 높이 올라갈 수도 없다. 그런 연유로 나는 자주 스스로를 일깨웠다. 인생이라는 길을 갈 때는 수 없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국내의 어느 불교 사찰을 참방했을 때, 패방에 붙은 ‘회두시안(回頭是岸)’이라는 글귀에 ‘방수여래(放手如來)’라는 대구를 만든 적이 있다. 더 세월이 지난 후에는 ‘끝없이 넓은 깨달음의 바다에서 내려놓는 것을 배로 삼으라.’는 글귀에 이런 구절을 덧붙이기도 했다. ‘우뚝 솟은 깨달음의 산에서 버리는 것을 지팡이로 삼으라.’

‘내려놓기’와 ‘버리기’, 이 두 단어는 내 일생을 함께한 좌우명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책 속 지식’과 ‘자연과 사회’라는 두 권의 글자 책과 글자 없는 책을 읽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멈추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책을 읽되 자신의 마음을 관조하지 않는다면,大千세계를 다 꿰뚫어 안들 ‘문외한’일 뿐이고 책벌레에 지나지 않는다.

석가모니불은 ‘문자반야’의 인도를 받아 출가 후 수년간 고행과 탁발, 동냥 등을 행하며 ‘실상반야’에 힘썼으나 끝내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마음반야’를 새겨 읽은 후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공자 선생께서도 말씀하셨다. ‘나는 하루에도 수차례 나를 돌이켜 본다.’ 노자께서도 말씀하셨다. ‘남을 아는 것은 지(智)요, 나를 아는 것은 명(明)이다.’ 루쉰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자주 다른 사람을 분석한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나 자신을 철저히 분석한다.’ 자연과 사회, 더 나아가 우주 전체의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반영되는 것이다. 외재적 물상과 외재적 우주, 세상의 만사와 만물, 수없이 거듭되는 변화들이 만약 우리 내면의 우주와 서로 연결되지 않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소위 대사나 대가라 불리는 사람

들은 ‘학문’과 동시에 ‘도’를 닦고, ‘외적 추구’와 동시에 ‘내적 반성’을 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문화를 만드는데 공헌한 민족이나 국가 역시 자기반성과 자아성찰을 중시하는 국가와 민족이었다.

두 해 전에 「자기 집 차고는 자기가 치웁시다」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한 편 썼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느낀 바를 쓴 글이었다. 로스앤젤레스의 주택가는 대부분 독립적인 별장들로 이뤄져 있고, 입구에 파릇파릇한 풀밭이 펼쳐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길 건너에서 바라보면 집의 왼쪽 뒤편에는 통상 차고가 하나 있는데, 차 두 대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도 있고, 세 대쯤 할 수 있는 사이즈도 있다. 이 차고들은 평소 열려 있을 때가 많은데, 지나는 길에 쳐다보면 그 안에는 차가 아니라 낡은 책걸상과 오래된 벤치, 녹슨 고물 제초기부터 종이 상자와 버려진 침대 따위가 가득했다. 나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차고란 본디 차를 넣기 위한 곳인데 어째서 집집마다 소중한 차(그 중에는 벤츠나 BMW도 드물지 않다)는 죄다 비탈길에 세워두고 햇볕에 그을리고 비에 젖도록 방치하는 것일까?

그러다 인류의 정신적 영역에도 이런 현상이 만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류의 마음에도 ‘차고’와 같은 곳이 있다. 사람들은 습관처럼 이 마음의 ‘차고’ 속에 쓰레기를 쌓는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오욕’이라 불리는 ‘재물, 색, 명예, 식탐, 잠’이다. 끊임없이 ‘오욕’을 쌓은 결과 선지식의 햇살이 더는 파고들 틈이 없고, 지혜의 벤츠와 BMW도 들일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미국인들도 그 사실을 아는지, 때때로 현관 앞마당에 ‘GARAGE SALE(차고 잡동사니 바겐세일)’이라고 적힌 팻말을 세우고 차고와 집 안에 쌓아 두었던 쓸모없는 잡동사니들을 모두 현관 앞의 잔디 위에 꺼내 놓고 헐값에 판다. 이런 식의 정리를 거치면 차고 속의 쓰레기는 점점 줄어들고, 쓸 수 있는 공간은 더욱 늘어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차고 안에 주차를 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대부분 새로운 쓰레기로 옛 쓰레기를 대체할 뿐……

‘내적 반성’에는 반드시 ‘내적 추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언젠가 불교 명산에서 중년의 부상과 만난 적이 있다. 인상이 온화하고 상당히 지혜

로운 분이셨다. 사이가 가까워진 뒤에 내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다 구하는 바가 있지요. 재물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관직이나 복, 자식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요. 당신은 뭘 바라십니까?” 처음에 그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한참 뒤에야 그가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나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자식도 있고, 사업도 괜찮고요. 나는 그저 조용한 곳을 찾아서 왔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주말이 되면 우리 집은 조용할 때가 없어요, 둘째 마누라에 셋째 마누라까지 들이닥쳐 소란을 피우고 난장판을 만드는 통에 아주 골머리가 빠질 지경이에요.”

나는 적지 않는 교회당에 가 보았는데, 교회당의 인상은 매번 달랐다. 대학 동기 중에 미국 델러스의 경찰서에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해인가 그녀를 만나러 델러스에 갔다가 그 집에 며칠 머물게 되었다. 일요일 아침이 되자 그녀는 나에게 자신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갈 참인데 함께 가 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하며 그녀를 따라 나섰다. 교회당에 들어서자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나를 끌어당겼다. 떠들썩한 소음도 소곤거리는 귓속말도 없이 경건하고 정성스런 묵도만이 가득했다. 나중에 왼쪽에서부터 검은색 주머니가 전달되어 왔다. 주머니를 받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었다. 나중에 친구가 한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넣은 것은 교회에 바치는 헌금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고 돕는데 쓰인다고 했다. “얼마씩 내는데?”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내저은 뒤 말했다. “하나님과 헌금한 사람만 알겠지.” 그녀는 잠깐 더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다. “성경에 ‘십분의 일 율법’이 있으니 적어도 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일 거야.” “너는 얼마나 내?”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수입의 30퍼센트쯤.” 그녀가 대답했다.

이 사건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에게 선을 따르라고 권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들이 재물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은 재물을 좇다 죽고, 새는 먹을 것을 좇다 죽는

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마음속에 인류의 지혜와 하늘의 가르침을 담을 만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

기독교인들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나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반드시 기도를 올리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아침 기도, 밤에 잠이 들기 전에는 저녁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중이야 나는 이 또한 내적 반성의 일종이자 영적인 차원에서 자아를 정결하게 씻어내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은 최근 물질적인 면에서 삶의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도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매일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할 수 있다. 물론 농촌에는 한 달 심지어 1년이 다 가도록 씻지 않는 사람도 드물지 않지만. 어쨌거나 사람의 몸은 평생을 씻고 또 씻어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 더욱 자주 씻고 깨끗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해인가 나는 ‘세계 작가 방문단’을 따라 윈난(雲南)으로 민요를 수집하러 갔다가 이족 지역에 도착해 ‘민간 무용 대잔치’라는 대형 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다. 무용 중에는 노인들만 추는 일명 ‘구닥다리 춤’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노인들 중에서 제일 젊은 축이 예순 일고여덟이었고, 많게는 여든 이상도 있었다. 허리를 흔들고 스텝을 밟고 다리를 힘껏 차는 동작이 모두 박자에 딱딱 맞았다. 나는 한 노부인에게 물었다, “평소에는 언제 춤을 추십니까?” 그녀가 말했다. “기쁠 때 추지. 관혼상제나 경조사에 춤을 추면 더 흥이 나고.” 내가 다시 물었다. “평소에는 몇 시까지 춤을 추십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그건 꼭 정해진 게 없어. 어떨 때는 날이 밝도록 추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 춤을 추신다고요?” 나는 몹시 놀랐다. “그럼 다음날 피곤하지 않으세요?” 노부인은 한심하다는 듯 나를 잠깐 쳐다보고는 말했다. “피곤해지면 또 춤판을 벌려야지!”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그 노인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았다. 그들의 몸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눈은 살며시 감긴 것이 마치 잠을 자는 듯 보였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의 몸은 움직이고 있으나 마음은 잠든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을 통해 조금하듯 날뛰는 마음에 안식을 주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부터 우리나라 평온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처럼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몸은 누워서 쉬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등락에 따라 쉴 새 없이 오르내리고 잠시도 편히 쉬지 못하다가 심지어는 꿈에서도 놀라 깨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두 해 전 평황넛(鳳凰岡)과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중국 사회를 짧은 문장으로 개괄하여 설명하기도 했다. “도리는 사라지고, 술수가 판을 치며, 권모가 성행하고, 물욕은 넘쳐난다.”

요 몇 년 사이 사람들, 특히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자주 화두에 올리는 주제는 바로 ‘미세먼지’다. 하늘의 미세먼지는 다 어디서 왔을까? 물론 공사장 분진과 석탄재,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등이 이유로 꼽힐 것이고, 틀린 말도 아니다. 하지만 어쩌서 것처럼 과도하게 많이 배출된 것일까? 결국은 이익에 눈이 멀고, 물욕이 팽배한 탓이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하늘의 미세먼지는 사실 인류의 마음 속 미세먼지의 반영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상 먼지와 때에 가려지지 않는 날이 와야만 인류는 푸르디푸른 하늘과 다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책 속 지식’이나 ‘자연과 사회’를 읽는 것에 비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가라앉히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세 권의 책을 서로 떼어내어 읽기란 불가능하다. ‘책 속 지식’을 읽는 것은 반드시 ‘자연과 사회’와 연결되고, ‘자연과 사회’를 읽을 때는 왕왕 ‘책 속 지식’을 통해 자신의 인생 경험과 결합하고 개괄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을 읽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만 하고, 그래야 우리 인생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읽으면 나아가야 하고, 나아가서는 생각해야 하며, 생각한 후에는 써야 한다. 또한 쓰는 곳은 곧 읽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며, 생각하는 것이다. 붓끝에서 읽고, 붓끝에서 나아가며, 붓끝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책은 문학을 창작하는 사람도 쓸 수 있고, 학문을 하는 사람도 쓸 수 있으며, 문과를 전공한 사람, 이과를 전공한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별다른 인식이나 견해가 없는 사람도 쓸 수 있다. 이런 책들은 장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늘어나 자신과 타인의 서재 책장을 가득 채우

고, 서점과 도서관의 서가를 가득 메울 것이다. 하지만 문과생과 이과생을 막론하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도 따질 것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공통된 주제의 책도 있다. 바로 우리 각자의 인생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우리 모두가 쓰고 있지만, 결코 남의 것과 유사할 수 없고, 각각의 책은 나름의 면모와 재미, 그리고 정신을 가진다. 우리가 쓰는 각양각색의 책이 인류 공통의 정신적 자산으로 전승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여부는 왕왕 이 책의 두께와 무게, 반짝임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곤 한다.

우리 삶의 모든 독서와, 내딛는 모든 걸음,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생각이 이 책의 모든 문자 부호와 단락과 장절이 된다. 이 책들은 도서관에 보관되지 않으며 인쇄되거나 유통되는 법도 없다. 일단 탈고된 뒤 그것들이 향하는 곳은 통상 무덤이나 공원묘지다. 그곳은 하늘나라의 도서관이다. 묘비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지만 사실 그것은 조물주의 작품이기도 하다.

매 순간 진지하게 독서에 임하고, 진지하게 한 걸음씩 처음으로 되돌아가며,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하나를 대하는 것이 우리 삶이 어떤 책을 완성해 낼 것인지를 결정한다. 또한 그 책은 그동안 우리가 써낸,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많은 책들의 두께와 분량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문’과 ‘도’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학문’을 닦되 ‘도’를 닦지 않을 수는 없고, ‘도’를 닦는 것은 곧 ‘학문’을 더욱 잘 닦는 것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날로 더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날로 비우는’ 것도 필요하며, 때로는 ‘다다익선’이, 때로는 ‘방수여래’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은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벗들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책을 잘 써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 책이 밑거름이 되어 여러분은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치면 반드시 함락시킬 것이며, 자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책들도 더 많이 써 낼 수 있게 될 것이다!